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렌스 클러스터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렌스 조영국 회장은 “중국에 투자하면 원가 절감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부품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것이 협력사와 함께 대대적인 전기차부품 투자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또 이번 투자는 일회성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우선 협력을 중심으로 전기차부품 생산 체계를 갖춘 다음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국산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DB손해보험이 지난달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차 대체부품의 출시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DB손해보험 박찬선 실장, 창원금속공업 이종선 대표, 파트너 김보민 대표, 민병두 국회의원 등 관련 기업 및 정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국내 대체부품 시장은 2015년 1월 자동차관리법(제 30조의 5)의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인증 제도가 시행되었고, 제도 초기 국산차량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대체부품의 공급이 되지 않았으나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의 유관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해 국산자동차에도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창원금속공업이 국내 최초 대체부품 1호(2019년 1월, 신타페 TM 앞 펜더) 및 2호(2019년 7월, 그랜저G 앞 펜더)를 생산하였다.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원조회사로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리

비 및 보험료 감감을 위해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업계 최초로 정부 및 정책기관(2014년 7월, 국토교통부, 자동차부품협회 등)과 업무제휴를 하였으며, 이번 국산자동차의 대체부품 공급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최초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하게 되었다. DB손해보험은 정부의 대체부품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비싼 수리비 지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폴터 그룹
초정밀 기어 가공기 메이커로 100주년 맞아



올해 100주년을 맞는 아폴터사의 가어호빙머신 조립장

초정밀 CNC 기어 호빙기 ‘Afolter AF110’로 유명한 스위스 아폴터 그룹(Afolter Group)이 1919년 창립 이래 100주년을 맞아 한국 내에서도 대대적인 기업 알리기에 나섰다.

아폴터 그룹의 2개 주요 사업영역은 시계제조 분야의 기어 트레인 위탁생산과 공작기계 및 수치제어 부문 개발, 제조, 마케팅이다. 그룹의 자회사 명은 각각 아폴터 피논(Afolter Pignons)과 아폴터 테크놀로지(Afolter Technologies)이다. 아폴터 피논은 스위스 시계제조 분야 기어 트레인 전문제조사로 지난 100년 동안 동력전달 기술부문 리더 입지를 확고히 해왔다.

아폴터 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로 기어 생산에 필요한 수치제어 기어 호빙 머신의 전문설계, 제조, 위탁생산업체다. 아폴터 테크놀로지 대표인 빈센트 아폴터씨는 “수십년 동안 우리는 고객사에게 좀 더 뛰어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초정밀 기어 호

빙 산업분야의 기술력과 혁신부문 리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폴터 테크놀로지는 R&D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다. 빈센트 아폴터는 “로봇, 머신러닝 외에 사내에서 설계하고 개발한 CNC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들은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폴터 테크놀로지 사의 CNC 기어호빙 머신은 시계제조, 마이크로 산업, 자동차, 비행기, 로봇, 서보모터, 치과업계의 마이크로 공학 기어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이 회사의 장비 80%는 유럽, 아시아, 미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구스
개방 가능한 클린룸 체인 e스킨 플랫폼 개발



e스킨 플랫폼 샘플 회의를 하고 있는 정준희 과장과 이구스 클린룸 산업 HQ 담당자 Peter Mattonet

엔지니어링 폴리머로 체인, 케이블, 베어링 등을 제조하는 독일 기업 이구스(igus)가 클린룸 체인, e스킨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했다. 기존 주름 튜브형 디자인과 달리 케이블 윤곽에 맞게 커버를 입힌 듯한 디자인으로 제품 개발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한다. 이구스가 2016년부터 공략해 오고 있는 클린룸 체인의 초기 모델은 밀폐형 주름 튜브 e스킨으로 길이 조절이나 유지보수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체인 클린룸 담당자 Peter Mattonet은 “e스킨이 갖는 유지 보수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플랫폼형 클린룸으로 제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품 개발을 시작하게 됐다”고 e스킨 플랫폼의 개발 배경을 말했다.

e스킨 플랫폼은 ‘flat’의 의미 그대로 매우 낮은 설치 높이와 작은 곡률 반경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케이블을 수축 포장하는 시중 플랫폼 케이블과 달리 폴리머로 압출 성형한 챔버에 케이블을 삽입해 사용한다. 이

는 각 케이블 교체를 용이하게 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직결된다. 한국이구스 정준희 과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e스킨 플랫폼의 아이디어를 본사에 제안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 시장이 가진 경쟁력 또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본사 반도체 산업 담당자도 현재 한국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이제 ‘반도체는 역시 한국’이라 할 만한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시장 공략에 대해 밝혔다.

현대모비스
미래차기술 개발로 지난해 600여건 특허 신규 등록

현대모비스(주)가 자율주행·커넥티비티·전동화 등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지난해 640건의 특허를 신규 등록했다고 ‘2019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등록된 특허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요소기술인 후측방 레이더와 첨단 지능형 헤드램프 등 현대모비스가 주력해 개발해온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현대모비스는 이처럼 혁신적인 미래차 부품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핵심부품 매출액의 약 9% 수준인 8,35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연구인력도 12% 증원된 4,100여명으로 확대했다.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이번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담았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위해 ‘미래차 기술개발 집중, 소프트웨어 중심회사로의 전략적 전환,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 강화’라는 4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센서부터, 운전자 지원 기술, 그리고 이를 융합한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 핵심 요소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21년까지는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V2X,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마친다는 전략이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의 전장화 속도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독창적인 융합 소프트웨어 과정을 가르치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현재 800여명 수준인 소프트웨어 설계 인원을 2025년까지 약 4천명으로 5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